

### 용자란 무엇입니까?

용자란 빌린 돈을 의미하며 한 번이나 그 이상의 분납으로 반드시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빌려 주는 사람은 빌린 액수에 이자를 부과합니다. 즉, 이것은 받은 돈보다 더 많은 액수로 갚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빌려 주는 사람은 비용을 제하고도 이익을 남깁니다. 이자율이 높을수록 당신은 더 많은 돈으로 갚게 됩니다. 같은 용자 액수에 같은 이자율이라 해도 매월의 분납 액수를 적게 하면 완불할 때까지는 더 오랜 시일이 걸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 \$ 500 을 연 18% 이자로 12개월간 빌려서 갚는다면
◆ 매월 \$ 45.84 x 12 개월은
\$ 500.00 (빌린 원금)
\$ 50.08 (지불한 이자)
\$ 550.08 (전체 갚은 돈)
◆ \$ 500 을 연 18% 이자로 24개월간 빌려서 갚는다면
◆ 매월 \$ 24.96 x 24 개월은
\$ 500.00 (빌린 원금)
\$ 99.09 (지불한 이자)
\$ 599.09 (전체 갚은 돈)

때로는 단돈 몇 백불을 빌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치 않은 병원 치료비, 고장난 가전제품, 혹은 출퇴근을 위해 중고차를 사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빌려야 할 액수는 작을지라도 갚아야 할 이자는 많을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 곳을 찾아 보십시오.

### 어떻게 문제를 피할 수 있을까요?

- ◆ 기대치 않은 비용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저축하십시오 : 비록 적은 액수라도 매주 조금씩 떼어 저축하면 도움이 됩니다. 기대치 않은 비용이 생기기 전에 저축하여 빌리는 일을 피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재정(예산)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보십시오. 그 분은 매월 돈을 어떻게 쓰고 또 저축할 수 있는지 도움을 줄 것입니다.
- ◆ 여러 곳을 찾아 보십시오 : 매월 분납하는 곳에만 찾지 마시고 연 이자율, 갚아야 할 전체 액수, 지불 회수, 그리고 용자에 부과되는 수수료 등을 비교해 보십시오.
- ◆ 차용서에 서명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십시오 : 용자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본인이 이해하기 힘들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시켜 읽어 보십시오. 만일 대여자가 당신으로 하여금 서류를 집에 가져 가서 읽어 보는 것을 허락치 않고 재촉하면 포기하고 떠나십시오. 그것은 문제 야기의 징조입니다.
- ◆ 다른 대안의 신용거래 : 은행과 비슷하면서도 연방정부의 도움을 받고 있는 신용조합에 구좌를 개설하면 전당포 같은 곳에서 254%~830%, 혹은 월급날 용자 편의점의 681%의 높은 이자 대신, 10~20%의 이자로 용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소기업을 시작하고자 하면 이런 일을 돕는 비영리 기관이 당신이 사는 지역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소비자 보호를 받으려면 어디에 가야 할까요?

만일 당신이 앞에 언급한 곳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당신의 권익에 관하여 알고 싶으면, 지역 법률상담소에서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돈 빌리실 분 주의하십시오: 소액용자, 전당포 이용, 임대에서 소유 과정의 값비싼 덧가

### National Consumer Law Center Inc.

18 Tremont Street, Suite 400  
 Boston, MA 02108-2336  
 617/523-8010 FAX 617/523-7398  
[www.consumerlaw.org](http://www.consumerlaw.org)  
[consumerlaw@NCLC.org](mailto:consumerlaw@NCLC.org)

## 소액 대여자들의 비리

- ◆ 어떤 대여자들은 아주 높은 이자율을 부과합니다.
- ◆ 대부분의 대여자들은 용자에다 수수료를 첨부하고 보험까지 사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부수물은 대여자에게는 돈을 더 벌게 만들고 빌리는 자에게는 부담이 더 커집니다.
- ◆ 어떤 대여자는 용자계산을 어렵게 만들어 실제 용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게 만듭니다.
- ◆ 어떤 대여자는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하여 빌리는 자의 부담으로 돈을 더 빌리게 만듭니다.

## 소액 용자의 각종 고액 부담

### 월금날의 용자

어떤 수표 환전편의점은 당신의 개인수표나 친지의 수표를 담보로 하고 현금을 빌려줍니다. 편의점은 그 수표를 예금하지 않고 1~2 주 그냥 지참하고 있는 조건으로, 수표의 액면보다 적은 현금을 줍니다. 어떤 때는 그 적은 액수에다 다른 수수료까지 부칩니다.

2 주후에 당신은 수표의 액면 전액(받은 돈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편의점은 수표를 자기 은행에 예금하여 환전해 버립니다. 가끔 그 업자들은 손님에게 이전보다 더 큰 액수의 수표를 발행하도록 하여 이자와 수수료를 공제하고 잔금을 조금 주거나 또는 한푼도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업자는 더 많은 돈을 당신으로부터 벌게 되고 당신은 대신 빚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수표 액수와 실제 업자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의 차이는 빌린 기간의 이자입니다.

예를 들면 :

- ◆ 당신이 \$256의 수표를 발행하여  
-\$200의 현금을 빌리면  
=\$56의 이자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연 681%에 해당)

이 엄청난 년 이자율을 10~15% 정도로 부과하는 은행이나 용자회사의 이자율과 비교해 보십시오.

### 전당포

전당포는 귀중한 물품, 즉 보석이나 스테레오, 심지어 자동차 등을 담보로 하여 현금을 빌려주는 업자입니다. 보통 전당포는 당신의 물품 가치에 반액 정도를 빌려줍니다. 당신은 약속한 기한 내에 반드시 돈을 갚아야 하며, 못하게 되면 전당포는 당신의 물건을 팔아 현금을 소유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수수료에다가 벌써 반값 밖에 받지 못한 것을 고려하면 연 200%의 이자를 지불한 셈이 됩니다.

### 자동차 등기를 전당잡힐 때

어떤 전당포는 자동차는 당신이 쓰되 자동차 등기 서류는 담보로 보관하면서 현금을 빌려 줍니다. 여기 역시 자동차 시가의 반 미만으로 줍니다. 빌린 돈을 이자와 함께 다 갚지 못하면, 전당포는 당신의 차를 찾아서 팔아버립니다. 만일 월금과 이자를 다 갚는다 해도 전당포는 당신으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습니다.

예를 들면 :

- ◆ 당신의 자동차 (\$1,000 시가) 등기를 주고 -\$500 현금을 빌려서
- ◆ 매주 \$103.30을 10주 동안 지불하게 되면
- ◆  $\$103.30 \times 10 = \$1,033$   
\$1,033을 지불했는데  
-\$500 밖에 받지 못했으니  
=\$533의 이자를 지불한 셈입니다. (연 830%에 해당되는 이자율)

### TV나 스테레오, 가구, 또는 가전품을 빌려 쓸 때

가전품 상점에 가서 이러한 용품을 사지 않고 빌려서 쓰면 적어도 사는 값보다 3배나 4배의 부담을 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

- ◆ 19인치 칼라 TV (\$300 가치)를 빌리면
- ◆ 매주 \$16 × 52주 = \$832  
\$832 (지불하고)  
-\$300 (가치의 TV를 가지면)  
=\$532의 이자를 지불한 셈이 됩니다. (연 254%의 이자율)

어떤 경우에 임대 회사에서 중고 TV를 빌려주고 새것이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주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만듭니다. 만일 한번이라도 지불하지 못하면 그 회사는 TV를 가져가 버리고 지금까지 당신이 지불한 것은 아무 것도 남지 않게 해 버립니다.